

## 아픔을 주고

윤 제 철(시인)

나로 인하여 아플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땃땃하게 자수하지 못하고  
낮아져야만 하는  
이 시간을 어찌지 못한다

남들에게나 있을 일이  
나에게 다가왔음에도  
그게 아닌 줄 알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눈 감아버렸으니 어찌나

그저 아무 일없이 지나가기를  
마음을 조아리며 시일만 지나가기를  
매달리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무릎을 꿇어본들 소용이 없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아플 뿐

코로나19가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나오고 백신 접종을 하고나니 위력이 많이 약해졌다. 감기를 앓듯 자가 격리하고 일주일이면 해제된다. 보통 감기인줄 알고 여태 핑계대고 내려가지 않던 고향에 내려갔다. 그러면서 자식들도 함께 가서 펴지고 말았다. 그런데 내려가서 감염시킨 것을 감추고 말았다. 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픔을 주고 마음이 불편했다.

그저 무탈하게 지나가기를 마음으로 빌고 빌었다. 죄를 짓고는 못산다는 말처럼 괴롭기 짝이 없었다. 이제라도 속 시원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지구상에 아직도 극성을 떨고 있는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기를 빌 뿐이다. 더 약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감기의 한 종류로 남아 마스크를 벗고 평상을 찾는 날이라도 오기를 기다려본다.

## 물 폭탄

조 홍 제(수필가)

중부 지방에 어제-오늘(8~9) 이틀 동안 450mm의 비가 왔다는 언론보도다. 기상청에서 예고하지 않은 날벼락이다. 그중에서도 내가 살던 동작구, 동작구 중에서도 보라매 역 근방에는 시간당 140mm가 왔다니 양동이로 퍼 붙는 것 같았을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온 것은 을축대홍수 때라고 한다. 한반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1925년 7월 10일부터 두 번에 걸쳐 10일 동안 753mm가 내렸다. 한강이 범람하여 남대문 앞까지 물이 찼고 사람도 600여 명이 죽었다는 통계다.

내가 경험한 큰 물은 80년대 후반 한강에서 보았다. 그때 강원도 쪽에 이틀 동안 450mm의 비가 왔다고 한다. 한강 다리가 떠내려 가려고하여 차를 못다니게 했다. 삼각지 로타리가 물에 잠겨 차가 못 다니고 인도교(제일 한강교)도 차의 통행을 막은 것이다. 그런 방송을 보고 장승배기서 걸어서 한강교에 갔다.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다리에 들어 가 물 구경 하였다. 나도 다리 난간에 매달려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이 물에 닿는 것 같았다. 반포 쪽은 온통 황토 물이고 망망대해에 선 기분이다.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 왔다. 그 중에서도 스티로폼이 많았다. 물이 다리 밑으로 노도와 같이 흐르다가 어느 순간 물의 흐름은 멈추고 다리가 상류쪽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현상을 두 번 경험했다. 다리가 흔들흔들 했다. 일엽편주에 탄 것 같아 겁이 나서 뛰어 나왔다.

한강이 범람하면 얼마나 피해가 많을까. 그 날 밤 걱정이 돼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방송을 보니 고양 쪽 한강 둑이 터져 물바다가 되었다. 개발되기 전 농촌이었다. 어떤 할머니는 지붕 위에 올라 가 작대기에다 흰 수건을 매달아 흔들면서 구조 신호를 보냈다.

이번 폭우로 보라매 역 사거리가 물에 잠기고 강남도 여러 곳이 물에 잠겼다는 보도다. 앞으로 300mm가 더 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700여 호가 물에 잠기고 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은 문이 안 열려 익사했다. 이번 폭우를 나는 물폭탄으로 보고 싶다.

나는 임진강 가에서 자랐다. 비가 많이 오면 뒷동산에 올라가 물 구경을 하였다. 온갖 것이 떠내려 왔다. 특히 목재가 많았다. 산에서 벌목을 하여 쌓아 놓은 것들이리라. 마을 청년들은 몸에 밧줄을 감고 들어 가 목재에 밧줄을 묶어 끌어내 많이 쌓아 놓은 집도 있었다. 장마가 개이면 나무 임자가 와서 가져가기도 했다.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해 홍수 때는 집이 떠내려왔는데 지붕에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갑자기 물이 불어 피할 겨를이 없었던가 보다. 초가집은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어 물이 지붕을 넘으면 반짝 들려 떠내려 간다. 설상가상

으로 구렁이가 달려들어 사람들은 작대기로 못 올라오게 했다. 구렁이도 살겠다고 오르려는데 사람들은 무섭다고 못 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물은 우리 마을 앞까지 왔다. 물이 빠지면 여기저기 웅덩이가 생기고 거기에 고기가 많았다. 큰 고기의 등지느러미가 부산하게 움직이면 집집마다 그물을 가지고 물에 들어가 고기를 건졌다.

물에서의 사고는 강에서보다 개울에서 많이 난다. 내가 피란 생활 하던 고장은 충청도 산골이었다. 마을 앞에 큰 개울이 있었다. 거기에 큰 돌들을 놓고 건너 다녔다. 그걸 징검다리라고 했다. 징검다리를 건너다 물을 보면 손가락만한 송사리들이 돌 주위에서 놀았다. 거기 사람들은 피라미라고 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다 고기를 잡는다, 고기를 물면 돌 틈으로 들어간다. 위에서 큰 돌로 내리치면 고기들은 놀라 정신을 잃고 허연 배를 드러낸다. 두 손으로 건져 산채로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징그럽기는 해도 고소하니 맛있었다. 비가 많이 오면 징검다리가 떠내려가서 학교를 못 간다. 결석해도 자연재해로 여겨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무리해서 건너다 죽는 사람도 매년 한-두 명씩 나온다.

산골 물은 물폭탄이 되면 눈 깜박할 사이에 불어난다. 장에 갔다 오던 3 사람이 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나를 건너는데 먼저 건너 사람은 잘 건넜다. 두 번째 건너던 사람은 산더미 같은 물이 덮쳐 와 지계를 벗어 버리고 뛰어 건넜다. 세 번째 건너던 사람은 못 나왔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산골 물은 몰라보게 불은 것이다.

60년대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여름 방학 때 오대산에 캠핑을 갔다. 계곡 가에 천막을 치고 재미있게 노는데 갑자기 큰 비가 와서 계곡물이 불었다. 천막을 걷고 지도 교수는 철수하려고 계곡을 건넜다. 물살이 세어 혼자서 못 건너고 여럿이 손을 잡고 건너다 다 떠내려가 12명인가 죽었다. 산골 물은 유속이 빠르고 돌이 떠내려 오다 다리를 때리면 중심을 잃는 것이다. 69년도에 설악산 12선녀탕 계곡으로 서울 신학대학 학생들이 캠핑을 갔다 폐죽음을 당했다. 12선녀탕 계곡은 설악산 중에서도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계곡이다. 그 중 대표적인 복숭아 탕은 하나로 된 희부연 높은 바위에서 맑은 물이 향아리 같은 소(沼)에 떨어져 깊은 물속 자갈까지 보인다. 폭포들이 연하여 있어 옛날에 선녀들이 내려 와 목욕했다고 해서 12선녀탕 계곡이라고 했다. 현대 계곡이 험하다. 나도 80년대 중반에 그 반대쪽인 장수대 산장에서 자고, 남한에서 가장 큰 대승폭포(88m)를 보고 대승령에 올라 12선녀탕 계곡으로 내려섰다. 중간에 12선녀탕이 있다. 길이 험하여 8km의 길을 7시간인가 걸려서 내려 왔다. 입구에 비석이 있는데 그게 서울신학대학 학생들 9명의 죽음을 추모하는 비석이다. 방역 당국에서 장마 때 계곡 가에 천막을 치지 말라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물이 불면 천막이 떠내려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폭우는 최고 300mm가 더 올 것이라는 기상청 발표이니 역대 최고일 것 같다. 피해가 커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에선 그렇게 되어 봤으면 하는 호기심도 이니 내 마음 속엔 천사와 악마가 같이 사는가 보다.